

《도라지》 창간 30돌 기념

구가 집
지작품
림족작
길선작

전경업 편

《트러지》 창간30돌기념

지구작가집
김지림
조선작가

전경업 편

[illegible]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吉林地区朝鲜族作家作品集:《道拉吉》杂志创刊30周年纪念:朝鲜文/全京业编.—牡丹江: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2007.10

ISBN 978-7-5389-1459-7

I. 吉… II. 全… III. 文学—作品综合集—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17.1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7)第147319号

书 名/ 吉林地区朝鲜族作家作品集

编 者/ 全京业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发行电话/ 0453-6423758

电子信箱/ hcxmz@126.com

责任编辑/ 崔冬梅

责任校对/ 朴莲淑

封面设计/ 咸成镐

印 刷/ 吉林市京源彩印厂

开 本/ 640mm×960mm 1/16

印 张/ 33

字 数/ 470千字

版 次/ 2007年10月第1版

印 次/ 2007年10月第1次印刷

书 号/ ISBN 978-7-5389-1459-7(民文)

定 价/ 45.00元

풍요롭고 뿌리 깊은 이 땅에서

—머리말을 대신하여

길림지구에서 조선족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시기는 1600년도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 길림지구에서 조선족들이 거주한 역사가 400년이나 된다는 말이다.

인적 드문 황야, 원시림 무성한 심산, 바로 그런 곳인 길림에 밭을 들여놓은 우리의 선조들은 진펄을 일구어 논을 만들고 산비탈을 파헤쳐 밭을 만들었다. 그래서 길림지구에서 거주하는 조선족들은 길림지구를 개척한 일원으로 떳떳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수많은 작가들을 잉태하였고 1977년에는 마침내 《도라지》라는 격월간 문학지를 창간하여 조선족문단에 또 하나의 튼튼한 버팀목을 만들어놓았다.

문화대혁명이 계속되어 만사가 부흥을 기다리던 때, 아직은 개혁개방이 갖 시작되던 때. 길림시의 신상걸, 남영식, 문창남, 고신일 등 문학인들은 민족문학에 대한 사명감을 안고 1977년 우리 글 종합성문예지인 《군중문예》를 창간했는데 이는 우리의 수많은 독자와 작가들에게 생명의 희망을 가져다주는 오아시스로 되었다. 1979년 《대중문예》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82년 3월에 지금의 《도라지》라는 이름으로 고착이 되었다.

창간되어서 장장 30년간, 《도라지》는 민족문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신성한 사명감을 지니고 문학지라는 공간과 해마다 2~3회씩 가진 작가양성반, 문학필회를 통해 수많은 작가들을 양성해냈다. 하여 《도라지》잡지는 태어나는 그날부터 중국조선족

문단의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되었으며 우리 문단에 새로운 희망과 신선한 기운을 가져다주는 엔진으로 되었다.

《도라지》잡지는 중국조선족문단 전체를 아우름과 동시에 길림지구에서도 많은 작가들을 양성했고 그들이 문학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었다. 《도라지》가 양성한 길림지구출신의 수많은 작가들가운데에는 우수한 작품을 창작한 지명작가들이 있는가 하면 수십년을 하루와 같이 작품창작에 몰두를 해온 우수한 업여작자들도 있다.

《도라지》창간 30돐을 맞으면서 《도라지》잡지사에서는 길림지구에서 처음으로 《길림지구조선족작가작품집》을 편집, 출간하게 되었다. 《도라지》가 창간된 30년간 《도라지》잡지에 발표된 길림지구조선족작가들의 작품들중에서 선별하여 수록함으로써 길림지구조선족문학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도라지》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길림지구조선족이 걸어온 길을 문학이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재조명해보고저 한다.

《길림지구조선족작가작품집》출간의 기회를 빌어 항상 도라지에 관심을 주신 사회 각계 인사들과 언제나 《도라지》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독자들 그리고 《도라지》의 성장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작가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번 《길림지구조선족작가작품집》출간이 《도라지》잡사와 길림지구조선족작가들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도라지》잡지사 사장

전경업

2007년 9월

목 차

풍요롭고 뿌리 깊은 이 땅에서/전경업	1
----------------------	---

중편소설

세상은 빠알간 색깔이다/고설봉	2
삶의 현장음/김홍란	44
신비한 사나이/반명	87

단편소설

묘갈명/강효근	138
영웅과 개/고신일	157
유채꽃 편지/김동훈	176
심산속의 주막집/김성룡	180
건널수 없는 강/김재국	199
송화호의 푸른 물/류재순	227
꿈/리동렬	248
락 엽/리오로	262
유 흑/안부길	276
국장네 고양이/원시희	300
상 전/정용호	317
고독의 세계/정재범	338
사랑의 선/조금숙	357
29세 너인의 어느날 오후/치비	367
회오리치마/한정화	379

수필

딱따구리와 비술나무/김룡운	412
걱정은 바람이다/김춘옥	415
붉은 꿈/남영식	418
시골 봄날의 인상/도규섭	421
기회는 잡는자의 차례/리옥금	426
길림 북산에 올라/문창남	429
그 맛, 사랑의 맛/서를	433
걸어온 길, 걸어갈 길/신상걸	437
문학은 영원한 애인/허만석	440
깨여난 세탁기/허순옥	444
흔들리는 마음/황옥란	448

시·시조

숨 결/금동춘	452
하얀 눈꽃처럼/김기덕	454
백두산/김태복	455
강변의 모래/려칠성	456
석 공/리상학	458
리 별/리영남	460
불씨앗/리인옥	461
나리꽃/박동옥	463
마음의 들창가/박운호	464
산/변창렬	466
첫보습 박으며/윤하룡	468
쪽지계/한득철	470
시골의 아침/한운호	471

평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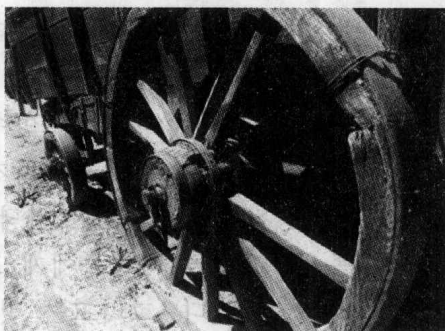
다양한 목소리 진실한 형상/김원도	474
가을철 소설문학의 비약과 탈절/엄정자	480
음영의 절대권위속의 인생그라프/전경업	489

기타

범꼬리/박기준	500
한 미인의 불운지사/장봉조	505
누가 민들레의 딱친구일가요/정치수	512

중편 소설

平 方 米 每 年 增 加 面 积 约 为 0.0001 公 顷



세상은 빠알간 색깔이다

고설봉

퇴근하고 계단을 오르던 만수는 그만 깜짝 놀랐다. 쥐가 두 눈을 판들거리며 계단에 쪼크리고 앉아 무엇을 먹고있었다. 냉큼 달아날줄 알았는데 참자코 제 먹을것만 먹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 만수는 다시 내려와 밖에서 기다렸다. 쥐가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도리어 사람이 쥐를 피해야 했다. 잔디밭옆 세멘트바닥에 빨간 담요를 깔 곳에 웬 녀인이 갓 목욕하고난 발바리들에게 드라이기를 뽀뽀 흔들어대며 개털을 말리우고있었다. 그리고는 빗으로 털을 살살 빗겨준다.

《예구, 우리 곱단이 목욕 다 했으니 치솔질하자.》

주인이 치솔을 들고 중얼거리자 곱단이는 입술을 쳐들고 송곳 같은 흰 이를 드러내보였다. 주인은 치솔에 치약을 발라 사람의 이발을 닮듯 상하좌우로 치솔질을 했다.

《자, 우리 곱단이 저기 가 양치질해.》

주인이 손으로 엉덩이를 탁 치니 털이 사자같이 길다란 흰 발바리가 쪼르르 달려가 대야에 담은 물에 입을 대고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양치질을 했다.

《자, 우리 곱단이 제 자리에 가 앉아.》

양치질을 하고난 곱단이가 혀로 주둥이를 싹싹 핥으며 주인 옆에 가 두발을 모으고 착 앉았다.

《자, 우리 꽃분이 차례다.》

온몸이 까마반지르한 감둥이가 쪼르르 달려나왔다. 주인은 드라이기로 뽀뽀 한번 돌렸다. 털이 짧고 또 까마반지르하였다.

주인은 드라이기를 끄고 흰 수건을 꺼내여 몸을 닦았다.

《자, 우리 꽃분이기도 이 닦자.》

꽃분이기도 입술을 쳐들고 이를 닦았다.

《자, 저쪽에 가서 양치질하고 제자리로 가.》

꽃분이기도 쪼르르 달려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양치질하고
곱단이옆에 가 앉았다.

《자, 마지막엔 우리 이쁜이?》

주인의 말소리가 떨어지기 바쁘게 몸이 노란색인 이쁜이가
달려나왔다.

목욕을 끝낸 주인은 개들에게 옷을 입혔다. 흰 사자 같은 곱
단이에게는 빨간 조끼를 입히고 까마반지르한 감동이 꽃분이에
게는 흰 조끼를 입히고 온몸이 노란색인 이쁜이에게는 까만 조
끼를 입혔다. 그리고 조끼안에 호출기를 하나씩 챙겨넣었다.

《애들아, 주의, 차렷!》

주인의 구령소리에 세마리의 개들이 일치하게 두발을 쳐들
고 꽃꽂이 일어섰다.

빨간 혀를 날름거리며 주인을 올똥히 쳐다보고있었다.

《번호?》

주인의 말에 제일 앞에 선 곱단이가 《콩!》하고 한번 짖고
그다음에 선 꽃분이가 《콩콩!》하고 두번 짖고 세번째는 이쁜
이가 《콩콩콩!》하고 세번 짖었다.

《야, 기특하구나.》

주인이 박수를 치며 칭찬하자 세마리의 개들이 고개를 까딱
이었다.

《자, 주의. 뒤로 돌앗!》

개들은 잔발을 디디며 뒤로 돌아섰다.

《뒤로 돌앗!》

개들은 또 잔발을 디디며 주인앞으로 돌아왔다.

《장하다. 환영!》

주인이 얼굴에 웃음을 띠며 손벽치자 개 세마리는 승벽내기

4 길림지구조선족작가작품집

로 왕왕 짚어댔다.

《오늘 체육수업은 그만, 놀러 가라.》

주인이 손을 것자 발바리들이 왕왕 짚어대며 잔디밭에 달려가 뛰놀았다.

한참 지나 주인이 모토로라 핸드폰을 꺼내들고 호출을 했다.

《삐삐삐, 삐삐삐...》

곱단이의 몸에서 호출기가 울렸다. 호출기소리가 울리기 바쁘게 빨간 조끼를 입은 곱단이가 짱충짱충 주인앞으로 달려왔다.

《차렷!》

곱단이는 앞발을 추켜들고 섰다.

《곱단아, 이번 시간은 수학공부시간이다. 요게 얼마지?》

주인은 식지를 내들었다. 곱단이는 《왕!》하고 한번 짚었다.

《우리 곱단이 정말 곱구나, 요건 얼마지?》

주인은 식지와 중지를 폈다.

《왕왕!》

곱단이는 두번 짚었다.

《요건 얼마지?》

주인은 식지, 중지, 무명지를 폈다.

《왕왕왕!》

곱단이는 연거퍼 세번 짚었다.

《우리 곱단이 참 곱구나. 자, 받아라!》

주인이 먹이를 던지니 곱단이는 쏜 양으로 입을 짹 벌리고 날아오는 먹이를 냉큼 받아먹었다.

《곱단아, 너 오늘 수학시험이 백점! 우리 곱단이 이거야.》

주인이 엄지손가락을 빼들고 곱단이를 칭찬하였다. 두발을 마주하고 주인을 향해 머리를 아래우로 흔들던 곱단이는 《왕왕!》하고 두번 짚고 쏘르르 잔디밭으로 달려갔다. 주인은 또 핸드폰을 눌렀다.

《삐삐삐, 삐삐삐...》

호출기의 신호소리를 듣고 이번에는 흰 조끼를 입은 꽃분이

가 짱충짱충 달려왔다.

《우리 꽃분이 용타, 오늘 수학공부하자. 응?》

주인은 《1+1=?》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자는 붉은색으로 써여있었고 답안자리의 물음표는 검은색으로 되어있었다. 두 발을 추켜들고 할기죽 카드를 올려다보던 꽃분이는 《왕왕!》하고 두번 짚었다.

《옹지옹지, 그래그래 우리 꽃분이 옹쿠나.》

주인은 《1+2=?》이란 카드를 바꿔들었다. 꽃분이는 인차 《왕왕왕!》하고 세번 짚었다. 주인은 먹이를 꽃분이에게 주었다. 꽃분이도 입을 짹 벌리고 날아오는 먹이를 냉큼 받아먹었다. 꽃분이가 달려가자 호출기소리를 듣고 마지막으로 달려온 이쁜이가 두발을 추켜들고 주인앞에 섰다.

《우리 무용가 이쁜이가 왔구나. 이번 시간은 무용시간이다.》

주인은 손에 든 휴대용 록음기의 건반을 눌렀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려나오자 이쁜이는 무용가처럼 장단에 맞춰 잔발을 디디며 춤을 추며 돌아갔다.

...이윽고 복도에서 배불리 먹은 쥐가 쪼르르 달려나와 개들이 노는 잔디밭옆 꽃밭속으로 사라졌다. 꽃밭옆에서 놀던 흰 고양이 두마리가 코앞을 지나가는 쥐를 멍하니 보고있었다. 이젠 고양이도 라태해져 쥐를 안잡는다. 편편히 놀고 먹고 잠만 자도 쥐고기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차례지기때문이다. 고양이와 쥐는 이젠 친구가 되었고 사람이 쥐를 피해 다녀야 했다.

만수는 발자국소리를 탕탕 내며 계단을 올랐다. 발자국소리에 각층에 달린 소리에 진동하는 전등이 하나씩 켜졌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은 텅 비여있었다. 와이프는 제시간에 퇴근할 때가 없었다. 언제 한번 제때에 집에 와 밥을 지어놓고 기다릴 때가 없었다. 만수는 담배를 붙여물고 창문가에 다가섰다. 승용차와 택시가 섞여 실새없이 오가고있었다. 직업이 교통경찰인 만수는 차량들만 봐도 눈앞이 어질어질해났다. 하루종일 차량들속에 묻혀 사니까 이젠 차들이 신물이 났다. 퇴근길에 오른 사

6 길림지구조선족작가작품집

람들이 부지런히 제갈길을 가고있었다. 벌써 담배를 두대 태워도 와이프는 역시 중무소식이다. 오늘은 기어이 와이프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리라고 작심한 만수는 애꿎은 담배만 태웠다. 어둠이 장막을 내리고 길가의 가로등이 빛을 뿌리고있었다. 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돌아와 배고프다고 칭얼댈것이다. 아들이 만 아니었다면 오늘 끝까지 뻔쳐보겠는데 아들이 보기가 민망스러워 만수는 두팔을 등등 걷고 쌀을 씻어 전기밥가마에 안치고 아들이 잘 먹는 소고기볶음을 했다. 참, 남자란게 매일 주방만 돌아쳐야 하니 무슨 큰 일을 하라. 만수는 저도 모르게 한숨이 흘러나왔다.

《후유-》

요즘 세상 남자들을 등수를 내보면 이렇단다. 1등남자는 집밖에 집이 있고 2등남자는 집밖에 꽃이 있고 3등남자는 집밖에서 꽃을 찾고 4등남자는 퇴근하고 곧바로 집에 가고 5등남자는 와이프가 집에 없고 6등남자는 와이프도 집도 없단다. 그러니 만수는 명백히 4등남자다. 퇴근하고 곧바로 집에 가는 4등남자. 어느 등수에 떨어졌으면 안돼 하필이면 4등에 떨어지랴. 죽을 4자! 듣기만 해도 몸에 소름이 끼친다. 5자도 4자보다 듣기 좋은데, 오복이라는 5자가 얼마나 듣기 좋은가.

-어허, 이런 변이라구야.

사실 만수는 4등이나 5등이라 할 필요없이 4,5등을 겸한 남자다. 퇴근하고 곧바로 집에 가는 4등남자에 와이프가 집에 없는 5등이니... 4,5등을 쌍으로 맞은 남자다. 에잇, 빌어먹을것. 들꽃을 꺾을수 있는 1~2등이 되든지 아니면 아예 집도 절도 없는 꼴등이 되든지. 이런 집은 있으나 와이프 없는 어느 등수에도 못걸리는 값없는 남자다. 제갈할! 무슨 팔자에 매였으면 안돼서.

-아이구, 내 팔자야.

만수는 주걱소리를 딱딱 내며 반찬을 볶았다. 소금 넣고 간장 쏟아붓고 다진 마늘을 한줌 넣고 맛내기를 한순가락 넣었다. 와락와락 볶아내고나니 속이 시원해났다. 해시시 웃으며 집안에

들어서서 철새없이 입을 나불거릴 아들과 조만간에 방긋 웃으며 돌아올 와이프를 생각하니 어딘가 마음이 좀 풀렸다.

간을 보지 않고 대충 볶았는데 아들은 반찬이 맛있다고 불이 미여지게 먹었다.

숙제공부를 끝내고 아들은 벌써 꿈나라로 들어간지가 오래였다. 했건만 와이프는 여태 돌아오지 않았다. 밥상우에 놓인 밥과 반찬이 싹 식어 랭기가 돌았다. 밥을 먹지 않고 기다린 탓인지 속에서 열물이 올라오면서 입안이 쓰거워났다. 화장실에 쏜 달려가 치솔질하는데 머리꼭대기에서 하수도물이 《싹-》하고 쏟아져 내려왔다. 순간 하수도관을 타고 고약한 냄새가 화장실에 물씬 풍겼다. 참, 조상님두 아예 인간을 만들 때 하루에 한 끼씩 먹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가? 돈 절약하고 사람 편하고 잘 먹지도 못하는 하루 세끼를 준비하느라 고생은 얼마나 많으며 땀 흘리며 먹느라 수고는 또 얼마나 많은가?

시간은 철새없이 흐르지만 와이프는 돌아오지 않았다. 삼라만상이 고요속에 잠긴다. 밤은 점점 깊어만 간다.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이 왜 이렇게도 지루할까? 지루한 시간끝에 또 고독이 소리없이 찾아왔다.

만수는 컴퓨터를 켜고 대화방에서 《세상을 휘두르는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채팅을 시작했다. 어느새 《장미꽃 녀인》이란 녀자가 채팅을 요구했다.

《즐거운 밤시간 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나니 연분이랄까요?》

-헛소리하고있네.

《세상을 휘두르는 사나이라니 경양강에서 범을 때려잡은 무송보다 더 용맹하겠어요?》

-오냐, 난 무송의 할배다.

《히히히, 아저씨는 참 유모아적이네요? 항상 즐겁게 지내겠어요?》

-즐겁기는 내가 무슨 즐거운 일이 있어. 매일마다 고독하다.

8 길림지구조선족작가작품집

《고독도 꼭 나쁘다고는 못해요, 귀찮게 구는 사람이 있을 때는 고독도 괜찮지요.》

-그건 여자들이다. 여자들...

《아저씨가 제일 즐기는건 무엇이세요?》

-내가 제일 즐기는건 여자다. 여자!

《아저씨가 제일 싫어하는 일은 무엇이세요?》

-밥짓기다. 밥짓기!

《밥은 지어야 먹고 밥을 먹어야 사람이 살지요. 이 세상에서 생존하려면 누구도 그 일을 피면 못해요.》

-그래도 난 신물이 나도록 지었다.

《제일 원하는 일이 무엇이세요?》

-내가 제일 원하는 일은 미국사람들이 지은 집에서 영국사람수준급의 월급을 받고 프랑스요리를 먹으면서 남편공대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한 일본여자랑 살아보는것이 원이다.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대문앞에 서서 기다리고있다가 허리를 곱싸하며 맞이하고 집문에 들어서면 옷을 받아 챙겨주고 김이 물물 나는 밥상을 두손으로 받쳐들고 들어와 남편이 진지를 드실 때 옆에 무릎 꿇고 앉아있고 저녁식사가 끝나면 차를 끓여오고 과일 대접하고 세수물을 받아오고 남편 잘 주무시게 이부자리를 펴드리는 여자과 살아봤으면 세상없이 좋겠다. 귀찮지 않게 하루에 한끼씩 먹고.

《그건 실현될수 없는 환상이예요. 꿈보다도 못해요.》

-꿈속에서라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꿈속에서라도...

《아저씨는 와이프가 무섭나요?》

-난 와이프가 무서운것보다 밍다 미워!

귀신이 제 말하면 온다더니 재미있게 채팅하는데 출입문 열쇠 돌리는 소리가 났다. 와이프가 돌아오는 모양이다. 만수가 웬 여자와 채팅하고있다는것을 와이프가 알면 작살이 난다. 만수는 얼른 채팅화면을 끄고 유희판으로 돌려 지뢰를 캐는 유희를 노는 척하였다. 이 세상에 와이프 안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월급을 타서도 담배돈 한푼 못남기고 고스란히 집안의 최고조직에 바쳐야 하는것은 이 세상 결혼한 사나이들의 공병(共病)이다.

《오늘이 컴퓨터 바이러스날인줄 모르세요.》

와이프는 빨리 컴퓨터를 끄라고 재촉이다. 만수는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힌들 넘어졌다. 밥상에 놓여있는 밥과 반찬을 본 와이프는 눈이 동그래졌다.

《여태 식사도 안하셨어요? 안오면 식사하지 않고?》

와이프의 말투에는 원망적인 색채가 섞여있었다. 만수가 묻지 않았는데 와이프는 제쪽에서 사우나에 가서 잘 놀았다고 자랑했다.

《뭐, 사우나?! 난 남자인데도 한번 못가봤는데 녀자들이 그런 곳에 막 다녀?》

만수의 언짢은 기색에 두눈이 올롱해진 와이프가 말했다.

《손님이 오셔서 단위에서 조직해서 갔는데요. 옥상에는 수영장이 있어 수영도 했어요.》

흥, 내가 퇴근후 조금만 늦어도 꼬치꼬치 심문하면서 자기는 사우나에 가서 밤새도록 놀고도 떳떳하니... 내가 사우나에 가봐라, 집문에도 못들어서게 할거야. 어디 두고보자! 만수는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았다. 배에서는 연신 꼬르륵 소리가 울렸다.

만수가 언짢은 기분으로 출근하는 날은 애매한 택시기사들이 벼락을 맞는 날이었다. 또 교통경찰에게 제일 만만하게 족쳐지는것이 택시기사였다. 첫눈에 핸드폰으로 통화하며 운전하는 택시기사가 걸려들었다. 만수는 오른손을 들어 스톱하는 동작을 취했다. 택시기사는 얼른 지휘에 따라 택시를 오른쪽 길옆에 정차했다. 만수가 척척 걸어가서 경례를 올리기도전에 눈치 빠른 기사가 벌써 차에서 내려 자동차면허증을 두손으로 받쳐 만수에게 올렸다. 자동차 면허증속에 50원짜리 인민폐가 한장 끼여있었다.

《죄송합니다. 좀 돌려주세요.》

택시기사가 웃으며 말했다. 예전 같으면 손톱도 안들어가던